

주거공간 내 가족유형별 사용행태에 따른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design for an interior space accompanied by an using pattern in behaving

As a family types in housing space

이병영* / Lee, Byung-Young

최경란** / Choi, Kyung-Ran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apartments, the representative form of residence in Korea, and analyzes the residential plane of 30-pyong apartments that are constructed by the 5 construction companies within in the past three years. It is discovered that these apartments show a certain form and that developing the frame work of interior ele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types of 30-pyong apartment residents and the process for such a frame work are needed. Therefore,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residential forms according to resident types, this investigation tries to approach the design centering around users. To summarize the steps and contents of this study, first, it draws the understanding and the study field of common residential space, second,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types within residential space, third, it analyzes and verifies the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amily types within the representative size and form of plane. This investigation is aimed to provide the reasons for developing different planes according to family types despite they may be of the same size, to show the frame of the study method for developing the plane design and the interior element design for users and to suggest the way of designing residence in a conditional approach applying the conditions of users within common residential space.

키워드 : User Center Design, Design Method, Apartment Housing, Family types specific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의 공동 주택에 대한 계획과 설계는 거주자의 평균적인 생활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지닌 거주자들에게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주자의 요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적 혹은 평균적인 주 요구를 가진 가족을 가정하여 계획이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거주자의 주 요구 반영에는 평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주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거주자의 주 요구

를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가족유형별 거주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주생활 의식상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에 있어 하나 하나의 공간계획전개에 행태적 특성에 따른 공간계획의 차별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인 공간으로서의 주거 공간은 문화 행태 연구의 종합적인 문화적 해석을 반영하며, 주거와 그에 관련된 문제들은 인간-주거-외부 환경체계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서 한다¹⁾. 뿐만 아니라, 개인 주거에 대한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거 공간의 개인적 공간에의 퍼스널리티 및 행태적 접근 방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 평면 분석을 통해 주거 사용자의 가족 유형별 행태적 특성에 따른 인자들을 공간계획전개에 적용하는 것을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둘째, 공간계획에서 행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석사수료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1)윤정숙·김선중·박경옥, 주거학 조사분석방법, 문운당, 1996, p.54

태 지향적 프로세스로 접근하여 사용자의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면 및 실내 요소의 전개틀(Frame work)을 모색하며, 셋째, 공간계획 전개에 행태 적용가능요소를 통해 인간과 환경의 상호 관계성을 기초로 인간 중심적 사고를 지향하는 공간 디자인의 전개에 적용해 봄으로써, 디자인의 새로운 전개 방법으로 활용하여 도움이 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간 행태의 다각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공간의 적용 가능한 가족 유형별 행태적 특성 인자를 추출하여 주거 공간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공간 행태의 이론, 행위 체계와 행태 적용요소 인자의 구분으로 공간계획 적용성을 규명하는 이론 연구의 범위와 공간계획 전개 방법의 변화 필요성을 위한 가설 제안의 범위, 이의 검증을 위한 모형 사례 계획 연구의 범위로 분류한다.

사용자 행태에 따른 일반적 자료에 근거하여 주거공간개념과 공간계획에서의 행태 역할 등을 고찰하고, 사례계획연구에서는 앞서 고찰한 행태적용 인자 및 공간계획 방법의 분석을 가족유형별 주거공간에 제안한다.

2. 주거공간과 사용자 행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주거공간의 의미와 행태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 실제 연구방법상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이에 관련된 문헌의 정리가 필요하다.

2.1. 주거공간

주거공간은 인간의 기본적 생활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과 교육, 종교, 오락, 사고 등의 생활까지도 수용하는 환경이다. 주거의 크기 및 내부 공간구성 등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욕구는 그 곳에 사는 거주자의 가족 수 및 가족속성 등 가족유형 및 가정생활 주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Morris & Winter, 1975). 따라서 주거환경은 가족유형 또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며, 주생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일정하게 유형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가족의 구성방식이나 가정생활주기 등에 따라 식당이요, 햇수가 차이나는 등 가족의 주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다(함상우, 1986)는 연구 결과가 있다²⁾.

2.1. 사용자 행태

행태는 타인과 이야기하며 주위를 맴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며, 보는 것을 포함하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총칭한다³⁾. 행태란 단순히 관찰되는 인간의 행위(activity), 그 자체

2) 신영숙, 주거공간 사용측면에서 본 가족간 상호교류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p.1987, 재인용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의 개념을 포함한 함축적 의미이다⁴⁾. 행동이 어떤 일정한 경향(tendency)을 띠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behavior), 혹은 공간상의 행동 패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공간행태(Spatial behavior)의 개념으로 축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경심리, 행태, 공간행태, 인간행태 등의 같은 의미의 중복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⁵⁾. 본 연구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 주거공간 내 가족유형별 사용행태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3.1. 기초조사




(1) 대표평면의 유형화

본 연구를 구체적으로 실측할 수 있는 대표 평면유형의 특성 또는 범위를 확정하는 연구 단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도급순위 상위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의 분양완료 및 분양예정인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카달로그 및 인터넷 자료(브랜드별 분양완료 및 분양예정)를 통해 30평형의 평면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단위 평면은 유사 평면형 조합으로 3침실 아파트 30평형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단위 평면 4가지 유형분석의 기준 틀은 다음과 같다.

1. 거실 및 부엌/식당의 연결방식은 어떠한가
2. 실 배치 방식은 어떠한가
3. 각실 및 서비스 공간 규모의 비율은 어떠한가
4. 출입구에서 내부 동선은 어떠한가

표본 수는 145개로 30평형의 대표평면의 유형화는 아래 표(1)와 같다.

<표 1> 배치방식에 따른 30평형 유형분류

구분	유형			
	A	B	C	D
평면도				기타
특성	L/DK 2R/L 53/145	LDK 2R/L 49/145	L/DK R/L 38/145	5/145

3) 조대성 외(譯), 사용자를 위한 환경설계 연구 방법 -John Zeisel, (서울: 누리에), 1996, p.9

4) 양호일, 환경심리인간행태 디자인사고에 관한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17

5) 최성호, 행위체계분석을 통한 공간 디자인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99, p.33

6)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2년 도급순위(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말까지 적용가능)

(2) 가족유형분류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공급자측면에서의 공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을 뿐, 공동주택에 사는 사용자들의 행태에 관한 의식이나 요구등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연구가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의 실 사용자인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한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거주자의 가족유형에 있다는 가설하에 설문지의 방향을 가족 유형별 거주자의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 성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30평형 대상아파트 거주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30평형대 아파트 실내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윤정근과 유길준 1998⁷⁾; 장재호와 김상호의 1인 1997⁸⁾; 김미희와 윤복자, 1992⁹⁾;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2000¹⁰⁾등을 근거로 하여 세대주의 연령, 가족 수, 가족형 등의 가족유형을 분류하였다. 세대주의 평균 연령분포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 수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3-4인'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형은 부부+초등교육기와 중·고등 교육기의 가족형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평형대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출생, 연령, 교육 등을 기준으로 가족유형¹¹⁾의 분류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2> 가족유형별 분류

유형	시간별	가족구성 (첫 자녀기준)	주생활 특성
A	학령전 아동기	부부+ 미취학자녀(1-7세)	취침실 이외의 개인실을 필요로 하고, 주거이동의 경험이 많은 단계
B	초등 교육기	부부+ 초등학생자녀 (8-12세)	가족구성원의 확대로 주거공간의 협소함을 경험하며, 자녀의 개인실 확대 요구가 강해짐
C	중등 교육기	부부+ 중·고등학생자녀 (13-19세)	
D	고등 교육기, 자녀 독립기	부부+ 대학교육자녀· 직업 적응기 자녀	주거공간의 규모나 구조적 측면에서 주거정책의 안정기를 맞게 됨

(3) 유형별 사용행태

본 연구를 위해 가족 유형별, 공간별 요구사항과 행태적 차이를 알기 위해 각 가족유형별 출생, 연령, 교육에 따른 기초 조사는 아래의 표(3)와 같다.

- 7)대졸 70% 가량의 사무관련직, 전문기술직의 가장으로, 전반적으로 4인이 거주한다고 나타남.
- 8)부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가족구성원이 주로 거주한다고 나타남.
- 9)30대와 40대 초반의 가장이 높게 나타나고, 부부+초등교육기와 중등교육기의 중간계층이 주로 거주한다고 나타남.
- 10)30대와 40대의 가장을 둔 2세대의 4인이 높게 거주한다고 나타남.
- 11)윤정근·유길준, 1998: 가족의 유형을 장자녀의 연령(1-7세, 8-13세, 14-19세, 20세 이상)에 의해 분류하였다.
- 신영숙, 1987: 가족의 유형분류를 Bigelow의 초등교육기와 고등교육기를 3등분하여 장자녀의 연령(만 12세까지, 만 15세까지, 만 19세까지)에 의해 분류하였다.

<표 3> 가족유형별 사용행태

유형	행태
A 유형	1) 남편의 가족 보살피기 참여율이 높음. ① ② 2) 남편의 가사 참여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53.1%로 높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 남편의 참여율(50.0%)도 높다. ① 3) 수납공간에 대한 의식은 옷방(드레스 룸), 아이방 불박이장, 앞 발코니, 뒷 발코니창고 등의 필요성이 높다. ①
B 유형	1) 여가활동은 TV시청(하루평균 2시간 8분), 컴퓨터 게임(30분), 운동 및 레저(21분), 독서(20분), 취미활동(3분)의 순이었다. ① 2) 자녀실은 자녀의 취침, 놀이 공간, 교우, 학습, 휴식 등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⑤ 3) 수납공간에 대한 의식은 옷방(드레스 룸), 아이방 불박이장, 발코니에 창고 등의 필요성이 높다. ①
C 유형	1) 자녀는 주로 운동은 농구, 축구, 롤러블레이드 등의 운동을 한다. ① 2)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으며, 자녀를 중시한 공간계획(자녀방 남향배치 및 확대)이 필요하다. ①
D 유형	1) 자녀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률(20-29:32.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② 2)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서 의료관리를 하는 비율도 높고 이에 소요하는 시간도 많음. ① 3) 자녀성년기에 있는 가정의 자녀가 초등교육기의 자녀보다 프라이버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난다. ⑤ 4) 자아실현/이웃과의 친교를 중시하는 계층이다. ①
유형 구분 통	1) 평일 오후 6:00-7:30까지의 이동자의 비율이 높다. ① 2) 아파트 베란다를 개조하여 실내공간을 좀더 넓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④⑤ 3)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초졸자, 중졸자, 고졸자에 비하여 운동율이 높음. ① 4) 음식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분, 청소 및 정리, 의료관리에는 각각 52분, 가족 보살피기에 1시간 51분, 물품 구입에는 41분, 집 관리 32분, 가정 경영 25분이 소요함. ① 5) 맞벌이 남편이 전업주부 남편보다 가사행동(음식준비 및 정리와 청소 및 정리 비율은 높고, 가족 보살피기를 하는 비율은 낮다)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지만 가사행동 시간은 차이가 없음. ① 6) 구매는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① 7) 자녀 방의 확장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③ 8) 부엌, 식당에는 가족단란의 행위가 거의 발생되고 있지 않다. ③ 9) 안방은 침실 용도로만 쓰이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안방문화에서 여성과 가족 중심으로 부엌에 컴퓨터와 책상을 마련하여 주방과 식당을 가족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④

* 원 문자는 참고 문헌리스트

3.2. 본 조사

본 조사는 주공간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공간이용의 행태적 특성 즉, 가족유형에 따라 주생활행위의 유형들이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공간의 성격에 따라 주생활행위의 유형들과 공간의 기능분화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공간에서 발생하는 변수의 유형들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이용주체별로 대응공간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족유형에 대한 공간이용 행위 구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가족구성원(가장, 주부, 자녀): 취침, 취미, 독서, 손님접대
 - ② 가족생활: 가족모임, 가족 TV시청, 가족식사, 음악감상
 - ③ 접대 및 행사: 생일축하, 가정의례, 반사회, 취미모임
 - ④ 공간육구: 실 규모, 배치, 실 구성, 공간활용 육구
- (1) 설문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설문조사내용

항목		세부내용
거주자 일반사항	가구특성	부부의 연령, 직업, 가족의 수 말 자녀 연령
	행위적 측면	주거동선(공간間, 공간內) 시간에 따른 행위유형과 분포 공간별 행위분포(거실, 안방, 부엌/식당, 앞 발코니, 뒷 발코니)
거주자 행태적 특성	공간 특성	공간별 기능, 실 배치와 구성 가구배치와 구성, 대응공간별 규모

(2) 조사대상자의 표집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동일한 평면 규모일지라도 강북과 강남의 주택 가격과 주거유형의 차이가 크고 거주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지역에서 강남과 강북의 4개 지역을 선택하고 각 집단의 목표 표본수는 25로 하였다. 개별 아파트 선정은 아파트 백과¹²⁾를 참고하여 정해진 평면 유형에 한하여 무작위로 표집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이었고, 총100부의 설문지를 선정된 거주지단지의 주부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측정방법으로 하였다. 그 중 총 72부(회수율 72%)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60부(유용률 8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등을 이용하여 주거공간 행태에 따른 거주자 의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4. 사례연구-3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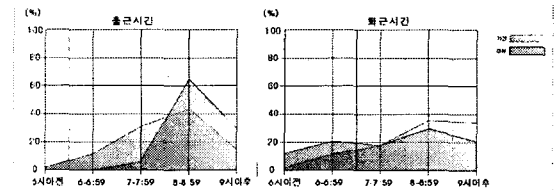
4.1. 거주자의 특성

조사대상아파트 거주자의 특성은 조사대상아파트 거주자의 특성은 세대주와 주부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출·퇴근시간, 가족 수, 자녀수, 가족 유형등을 살펴보았으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세대주의 평균 연령분포는 가장(30대:32세대, 40대:14세대, 50대:13세대, 기타 연령대:1세대)이 주부(30대:31세대, 40대:18세대, 50대:10세대, 기타 연령대:1세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세대주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대졸'이 75%를 상회하는 비교적 고학력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주의 직업은 전반적으로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의 높은 분포로 나타나 학력분포와 관련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주의 평균 출근 시간은 8-8:59(45%), 7-7:59(31.7%)의 높은 분포를 보이며, 평균 퇴근 시간은 8-8:59(36.7%), 9시 이후(31.7%)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부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8-8:59(68.8%), 9시이후(8%)의 높은 분포를 보이며, 평균 퇴근 시간은 8-8:59(31.3%), 9시이후(21.9%)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편의 출근이 부인 보다 일찍하고 맞벌이의 경우 부인이 남편보다 일찍 귀가후 가사 일을 보고 가족단란은 8시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가구특성으로 가족 수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4인(4인:60%, 3인:25%)의 분포가 많고, 자녀수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2인(2인:60%, 1인:25%)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아파트 거주자의 특성을 종합하면 조사대상 30평형의 경우 30대-50대 연령의 가장을 둔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며, 가장의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8시 이후에 주로 가족 단란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4.2. 공간이용의 행태적 특성

(1) 안방

「안방」에 대한 주공간 의식을 살펴보면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부부만의 공간'이라는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 유형」의 자녀 안방 취침의 경우에는 취침 후 육아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거실

「거실」의 주생활은 개인생활, 가족생활, 사회생활, 가사생활을 위한 기능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사회생활의 빈도가 적은 관계로 계획시 가족단란을 위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3) 부엌/식당

「부엌/식당」에서는 '가족단란'의 행위가 많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부엌/식당」의 기능이 단순히 가사작업이나 식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기능의 폭이 확대되어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고려되어야 한 것으로 분석된다.

(4) 앞 발코니

「앞 발코니」에서의 주생활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사생활행위에서도 세탁 및 손 세탁, 식품손질의 행위가 극히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건조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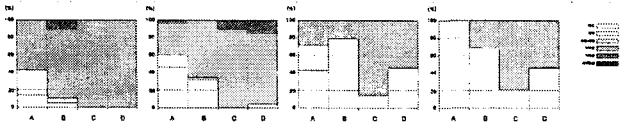
(5) 뒷 발코니(다용도실)

「뒷 발코니」의 주생활행위의 유형은 가사생활 행위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장소로 세탁, 건조, 보조 조리, 식품손질 등의 가사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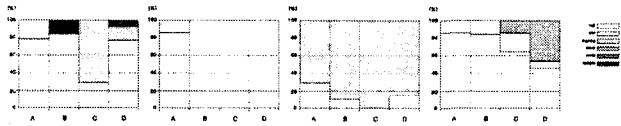
12)세진기획, 2002. 12, 아파트 백과

4.3. 가족 구성원별 행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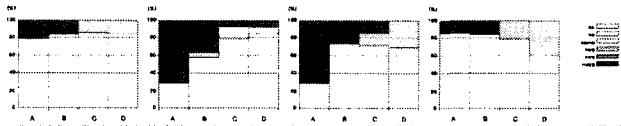
(1) 가장



(2)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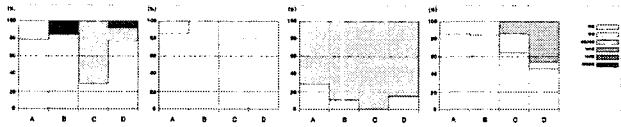


(3)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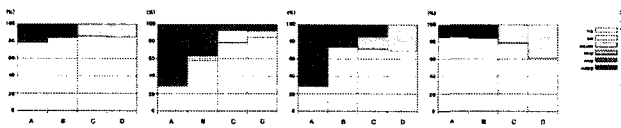
4.4. 가족생활에 따른 가족유형별 특성

(1) 가족생활



4.5. 접대 및 행사에 따른 가족유형별 특성

(1) 접대 및 행사



4.6. 공간욕구에 따른 가족유형별 특성

(1) 거실-부엌-식당공간의 중문형태

선호하는 거실-부엌-식당공간의 중문형태에 대한 질문에 30평 전반적으로 원하지 않는(58.4%) 추세였다. 원하는 경우에는 주방과 식당이 개방되고 거실이 독립된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유형(A유형: 21.5%, B유형: 15.8%, C유형: 50%, D유형: 46.2%)간 차이를 보면 주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방과 식당이 개방되고 거실이 독립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남향배치 선호공간에 대한 분포

주거 내 남향 배치 3개의 공간에 대한 선호도는 30평 전반적으로 거실(33.4%)>안방(24.5%)>자녀 방(26.1%)의 순서를 보이며,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단란 공간으로서의 부엌/식당 공간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거 내 주부 전용공간 선호 및 활용도

주부 전용공간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부 전용공간(희망:75%, 희망하지 않는다:25%)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 희망 공간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거실, 안방(A유형: 57.2%, B유형: 47.4%, C유형: 35.8%, D유형: 30.8%)에 주부전용공간을 높게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식당/부엌공간(A유형: 7.2%, B유형: 10.6%, C유형: 28.6%, D유형: 23.1%)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맞벌이(53.4%)로 인해 가족단란행위에 대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단란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실, 안방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식탁의 보조기능에 대한 활용도 및 선호 분포

조리이외의 식탁기능에 대한 활용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채소 다듬기(22.8%), 독서 및 가계부정리(22.3%), 손님접대(21.7%)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유형별 식탁의 기능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의 귀가 늦은 「C」 유형과 「D」 유형의 경우에 주부의 의식이 식탁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단란(C유형: 28.6%, D유형: 20.6%)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여유방에 따른 활용공간 선호도

여유방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질문에 남는 방이 없는 경우(25%)와 방이 있는 경우에 옷 방(31.7%)과 서재(2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이 부족(C유형: 42.9%, D유형: 53.9%)하여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옷방과 서재를 위한 작은 기능적 공간의 제공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6) 앞 발코니 기능공간 제공 시 활용 공간 선호도

앞 발코니 공간에 기능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가정하에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 기능 선호도 분포는 운동 및 취미공간(40%), 화단공간(31.7%)에 대한 높은 분포도를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B유형의 경우에는 창고형 수납공간(31.6%)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자녀의 장난감, 놀이로 인한 수납공간의 부족을 알 수 있다.

5. 유형별 행태적 특성을 적용한 PLAN 방향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30평형대 평면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유형별 행태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표 5> 30평형대 가족 유형별 행태적 특성을 적용한 PLAN계획 방향제안¹³⁾

구분		가족 유형별 특성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가족 구성원	가장	가사 참여율이 높다	가사 참여율 높다	거실 중시	건강고려, 독지선호
	주부	자녀관심 극대	가사작업 많음	부엌/식당 공간 활용 욕구 높다.	
	자녀	안방공간 활용 높음	거실공간 활용 높음	독립공간 욕구	가사 참여율 높다
가족생활 행사, 의례 및 접대		안방중심에서 거실 중심으로 변모, 거실의 자리매김 확고하다. 거실-부엌공간으로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임.			
선호도 및 활용도	남향배치	거실-자녀방-안방	자녀방-거실-안방	거실-안방-식당/부엌	거실-안방-식당/부엌
	식탁 보조기능	채소 다듬기 독서 및 가계부정리손님접대	채소 다듬기 독서 및 가계부정리손님접대	가족단란 손님접대	독서 및 가계부정리손님접대 가족단란
	주부전용공간	거실, 안방(가족단란과 동시예)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확장공간	식당/부엌-거실-자녀방	식당/부엌-자녀방-거실	거실-식당/부엌-자녀방	거실-식당/부엌
	축소공간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
	필요공간	취미공간	자녀교육공간-수납공간	취미공간-독서 및 학습공간	취미공간
	여유 방	옷방-서재	옷방-서재	남는방이없다-서재	남는방이없다-서재
	앞 발코니	운동 및 취미공간	운동 및 취미공간-창고형 수납공 간	화단공간-운동 및 취미공간	화단공간
	주방중문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주방,식당/거실	주방,식당/거실
	세탁건조	공간의 통합보다 기능적 통합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요구			
소결		미취학 자녀중심 넓은 거실선호 외부공간 행사 높음 거실공간 기능높음	부부가 함께 하는 가사생활 수납공간 재배치 주부 가사노동 많음	부엌/식당의 가족 단란 기능 자녀방 독립성 높음 개개인의 생활패턴	건강관련중대 거실과 주방분리 접대중대(주부공간) 전가족 가사 PLAN

6.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거주자의 공간 이용의 행태적 특성과 주 공간 의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안방중심에서 거실중심으로, 가장중심에서 주부, 자녀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계획과 설계에서 거주자의 다양한 주생활행위의 변화와 공간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사용자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설계기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과 결과는 향후 가족유형별 행태적 특성을 적용한 실내디자인 설계를 위한 좀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구분으로, 가족유형에 맞는 실내디자인 계획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 통계청,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2002
3. 윤정근, 유길준, 아파트 공간이용의 행태적 특성과 주공간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11호, 1998.11
4. 인터넷 한계제, <http://www.archinfo.co.kr>
5.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10
6. 김경순, 여성의 삶의 관점에서 본 공동주거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2001.12
7. 중앙대학교, 여성의 삶의 관점에서 본 공동주거 디자인방향에 관한 연구 -중산층 주부의 가정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8. 윤정숙·김신중·박경옥, 주거학 조사분석방법, 문운당, 1996

9. 조대성 외(譯), 사용자를 위한 환경설계 연구 방법 -John Zeisel, (서울: 누리에), 1996
10. 세진기획, 아파트 백과, 2002. 12
11. 김수진·이영수,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호, 2000. 3
12.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2000
13.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2년 도급순위
14. 양호일, 환경심리인간행태 디자인사고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 1988
15. 최성호, 행위체계분석을 통한 공간 디자인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99
16. 신영숙, 주거공간 사용측면에서 본 가족간 상호교류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7

13) 조사결과 항목별 빈도를 토대로 유형별 출현빈도별 변수를 서열화 하였다.